

AUTHOR 권호덕

TITLE 한국교회에 대한 칼빈 신학의 기여
-보수교단을 중심으로-

IN 한국개혁신학

Vol. 27 (2010): 8-47

『한국개혁신학』 제 27호 (2010) : 8-47

한국교회에 대한 칼빈 신학의 기여

- 보수교단을 중심으로 -

권호덕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칼빈 탄생 500주기를 맞이하여 한국 땅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칼빈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 면에서 한반도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본다.

우선 칼빈의 신학은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들과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일에 기여했다. 그리고 성경을 중요시하는 칼빈의 신학은 한국에 성경중심적인 신학을 수립하여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

그 다음 미국 장로교 신학교 출신의 보수측 교수들이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일하면서 칼빈에게서 비롯된 이런 신학을 정립했다.

그리고 칼빈의 일반은총에 대한 신학을 재부흥시킨 아브라함 카이퍼와 헨리 미터를 통해 한국 교회에 칼빈의 일반은총 사상이 소개되어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신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서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게 했다.

칼빈의 사상은 한국 정치체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프린스턴에서 신학까지 공부한 이승만박사를 통해 우리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세워지게 했으며, 많은 한국 기독교정치인들이 칼빈주의 정치 체제를 실현하고자하고 있다.

학문분야에서도 우리는 칼빈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화란의 도예베르트 의 기독교철학이 소개되어 하나님 중심적인 학문체제를 추구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청교도문화를 소개하고 기독교적인 문학운동을 수행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에 잠복하고 있던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칼빈신학이 한국 땅에 잘 발전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스며 있는 운명론, 유교적 우두머리주의, 유교적 과거지향적 사고방식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한국땅에 칼빈의 신학을 발전시킬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헨리 미터, 한국교회, 정치, 하나님 중심 학문체제, 유교적 과거지향주의 사고방식

•투고일: 2009. 11. 07 •수정 투고일: 2010. 1. 16. •게재 확정일: 2010. 3. 16.

들어가면서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칼빈의 가르침을 추종한 교회로서 한국교회에 칼빈이 어떤 영향을 끼쳤나를 살펴본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한국교회에 장로교가 전래된 지도 12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살펴보는 일은 필요한 것 같다. 이 말은 물론 칼빈이 한국 땅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는 말은 아니다. 이는 칼빈의 신학사상이 지구 반 바퀴 이상 돌아 한국 땅까지 오기에는 한국 땅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칼빈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칼빈의 영향은 간접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칼빈의 한국 땅에 끼친 영향에 대해 생각할 때, 훨씬 먼저 한국 땅에 전래된 로마 가톨릭 신학이 이 땅에 끼친 영향과 비교하게 된다. 한국 근대 역사는 로마 가톨릭 신학이 한국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엄청난을 보여준다. 우선 종교적인 차원에서 세계관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실학과 선구자인 이수광(1563-1628)이 그의 저서 『지봉유설』에서 아담 샬의 저서 『천주실의』를 논평했는데, 민경배에 의하면 천주실의가 동양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창조설을 주되게 논변함으로써 획기적인 사상적 혁명을 일으켰음을 지적한다.¹ 이런 사상적 혁명은 사변에 빠진 유학을 극복하고 實學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² 이런 점은 천주교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 가운데 높이 평가할 내용들이다. 그 외에 교리적인 측면에서 끼친 영향은 물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 땅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의 영향과 개신교 중에서

¹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50. 민경배에 의하면 그 당시 한국 세계관은 세계사가 우연과 윤회의 요행과 인과의 보응이 뒤섞인 장소인 것으로 여겨졌고 자연과 우주 및 인간의 일원성(一元性), 신인적 차원의 일원성을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이것은 자연을 신으로 여기는 범신론적인 세계관이다.

²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52. 민경배는 고종 때 사람 박계형의 말을 인용하여, 이런 실학과 사람들이 서학 내지 천주학의 영향을 받아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 발전시켰음을 지적한다. 재인용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上卷』, 23. “高才博學之士가 다 앞서서其敎에 들어가는데, 어떤 이는 醫學으로서, 어떤 이는 農學으로서, 어떤 이는 數學으로서 다 그 精妙를 얻나니, 無知之민은 그 諸般 學藝가 결국은 天主敎書에 전부 있다 하여 이를 찾아보고 其奇를 目擊하고 信之確”

도 장로교의 영향을 비교하는 이런 연구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개신교가 한국 땅에서 기여한 일을 분석하고 나아가 반추하며 발전시킬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는 간접적이거나 칼빈의 사상이 한국 땅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 교회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영향을 살펴봄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본 논문에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칼빈의 후예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떻게 기여했을까? 이들은 또 이 땅에 개혁주의 신학을 정착시키는 일에 어떻게 기여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의 일반은총론은 한국 교회에 어떤 기여할 했을까 하는 것이다.

A. 칼빈의 후예로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

어떤 점에서 칼빈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영향을 끼쳤을까? 흥미롭게도 한국 땅에 먼저 개신교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은 유럽과 미주에서 온 개혁교회 선교사들이다. 물론 선교 사역은 개혁교회의 전용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개신교 가운데 한국 땅에 처음으로 복음 전파를 시도한 것은 칼빈의 후예들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의 선교 방법이 성경을 중요시하고 성경을 전달하려는 칼빈의 신학 사상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

1. 칼빈의 후예들로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선교사들

칼빈의 영향을 받은 영국 회중교회³와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선

교사들이 처음으로 한반도에 발을 내디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썼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말하자면 칼빈의 후예들을 통해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었다는 말이다.

a.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토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한국 땅에 희생된 첫 순교자이다. 그가 미국상선인 General Sherman호를 타고 평양 시까지 올라갔으나 폭우와 홍수로 인해 배가 모래사장 위 진흙에 빠져 대동강 강변에서 한국 병사에 의해 1866년 9월 2일에 살해 되었다.⁴ 그는 이미 1865년 9월 4일에 중국 '지부'를 떠나 한국 어느 해안에 도착하여 한국말도 배우고 성경책을 한국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⁵ 김대인은 토마스가 이 지역에서 수행한 전도 여행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⁶ 그 당시 복음을 전하고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과 같은 것이었다. 토마스로부터 성경책을 받은 한인들은 "목잘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책을 받았다고 한다.⁷

³ Karl Heussi, *Kompendium der Kirchengeschichte*(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81 16. Aufl.) § 98 g-h. 영국회중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유교회로서 개교회 독립성을 주장하며 규격화된 기도서와 신앙고백서도 없으며 일정한 절기도 없고 외에는 칼빈의 신학을 가르쳤다.

⁴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4판), 48. 백낙준은 여기서 *Annual Report of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for 1867*, 80을 인용한다.

⁵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46f. 여기서 백낙준은 토마스의 편지를 인용한다. 중국 북경에서 1866년 1월 12일에 부친 것. *The Missionary Magazine and Chronicle for July*, 1866, 200, 201. 민경배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서해안 이름이 솔내 또는 용진 부근인 자라리(紫羅理)라고 한다. 보라,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8판), 119. 토마스는 백령도에서도 전도활동을 했다고 한다.

⁶ 김대인, 『숨겨진 한국교회사. 민족 교회의 발생』(서울: 한들, 1995), 38. 김대인은 吳文煥, 『史蹟探訪教會巡禮記』(서울: 토마스牧師殉教紀念會, 1955), 12을 인용한다.

⁷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47. *The Missionary Magazine and Chronicle for July*, 1866, 200, 201.

우리의 질문은 목숨을 걸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토마스는 어떤 교회 출신이며 그리고 어떤 신학에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민경배는 토마스가 1840년 9월 7일 웨일즈의 Rhayader(Ranoshire)에서 회중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⁸ 그리고 그는 런던대학교 뉴 칼리지를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를 받고 1863년 6월 4일 Wales, Abergavenny의 Hanover 교당에서 안수례를 받고 런던선교회 중국서교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한다.⁹ 민경배에 의하면 이 New College는 교회대학으로서 신학과정이었다.¹⁰ 만일 그가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다면 그는 칼빈 신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1850년에 회중교회의 기관으로 세워졌다면 그는 칼빈 신학으로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¹

b. Alexander Williamson

우리는 스코틀랜드인들이 한국 선교에 선봉장에서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한 사람인 스코틀랜드인은 A. Williamson이다. 민경배는 1866년이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복잡한 해인 동시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인과 의미 있는 접촉을 시작한 해임을 지적한다.¹² 윌리엄슨은 1866년 4월에 요동지방의 Ying-tze-kow에서 한국인 상인들과 여행자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서적들을 주면서 그들과 더불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¹³ 그는 여

⁸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116.

⁹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45. *The Missionary Magazine and Chronicle for Aug*, 1885, 220, 221.

¹⁰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16.

¹¹ 각주 1번을 보시오.

¹²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22.

¹³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22. 민경배는 여기서 A. Williamson, *Journey in North China, Manchuria, and Eastern Mongolia; with Some Account of Corea*(London: Smith, Elder & Co., 1870), vol. II: 131을 참조한다.

러 경로를 통해 중국에 온 한국인들을 만나고 또 이를 통해 한국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¹⁴ 흥미로운 것은 그가 무력을 통해서라도 개국하도록 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어했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은 여기에 속한다.

“대영제국과 같은 나라들이 한국과 같이 어리석고도 무식하게 폐쇄하고 있는 나라들을 개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군력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요 특권이라고 믿는다...전쟁이라는 것이 바록 악이기는 하지만, 진실한 문명의 불빛에 완전히 접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결국에 가서 선의 相殺로 끝날 것이다”¹⁵

마치 그는 한국 선교를 위한 전략가의 구실을 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Williamson은 어떤 교회 출신이며 어떤 신학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백낙준은 Williamson이 스코틀랜드인이며 倫遜 선교회 선교사로 1855년에 중국에 와서 Griffs John 등과 함께 상해에서 선교했다는 것과 다시 귀국했다가 1863년 스코틀랜드 全國聖書公會의 대표로 다시 중국에 왔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활동했다는 것만 말할 뿐 그의 교육 배경이나 자라난 교회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¹⁶ 이런 점에서는 민경배도 마찬가지이다.¹⁷ 우리는 그의 직분으로 보아 칼빈의 제자였던 존 나스의 후예로 보아도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도 간접적이거나 칼빈 신학이 너울을 타고 온 물결처럼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음을 감지할 수 있다.

¹⁴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23f.

¹⁵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24. 민경배는 여기서 A. Williamson, *Journey in North China, Manchuria, and Eastern Mongolia; with Some Account of Corea*, vol. II. 311을 인용한다.

¹⁶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47f.

¹⁷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23ff.

c. John Ross와 John McIntyre

그 다음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공헌한 스코틀랜드인은 이 두 사람이다. 이들은 직접 한국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만주로 내왕하는 한국인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여 세례를 준 다음 이들이 본국으로 들어가 勸書로서 번역된 성경을 반포하도록 만들었다.¹⁸ 현대 말로 표현한다면 이들은 리모컨 조종 선교를 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선교사들이 기쁨으로 韓國語 개인 교사가 되어 주겠다는 李應贊이라는 사람도 만났기 때문이다.¹⁹ 그는 이 선교사들이 누가복음을 한역하는데 도왔을 뿐 아니라 한인으로서의 첫 개종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민경배는 이 선교사들의 사역이 비록 간접적인 선교 사역이었지만²⁰ 한국민족교회사의 첫 틀이 잡혀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한다.²¹ 이는 그들의 한국어말 성경번역과 또 그들과 관련되었던 한국인 전도자들이 한국 교회사 최초의 페이지에서 길이 빛날 공헌을 남겼기 때문이다.²² 사실 만주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과 한인 동역자들의 노력으로 복음서의 번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선교사들의 교육 배경이나 교회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서 그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칼빈의 신학이 간접적으로 한국 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위에 언급한 선교사들은 성경을 전달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즉 이들은 천주교 전도방법과는 달

¹⁸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50.

¹⁹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49f.

²⁰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25.

²¹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25.

²²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25.

리 성경의 전파와 번역을 통한 것이었다.²³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至上 命命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주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교황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았음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²⁴ 또한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믿음이 전파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에 의해 胚胎됨을 강조함으로써²⁵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의 중요성을 암시한 것이다. 칼빈의 후예들이 선교를 중요시한 것은 칼빈이 말씀을 중요시하는 신학적 동기로 거슬러 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미국 선교사들

북쪽으로부터의 한국선교가 門戶開放 以前이라면 미국으로부터 온 선교는 門戶開放 以後의 사건이다. 우리의 관심이 칼빈의 후예들로서 장로교 출신들이 어떤 측면에서 칼빈의 신학을 실현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알렌과 언더우드 이 두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킨다.

a. 알렌(Horace Newton Allen)

여러 개신교 교회들 중에 처음으로 한국에 住在선교사를 파송한 영예를 가진 교회는 미국 북장로교회였다.²⁶ 이 말은 알렌은 바로 이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醫師 선교사였다. 그의 선교방법은 소위 바울처럼 직접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천막 선교' (tent mission) 방법 같은 것이었다. 바울과 다른 점은 알렌의 경우 일반 직업이라는 가면을 쓰

고 들어가 복음을 침투시키는데 역점을 둔다는 점이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선교사라는 신분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⁷ 이것은 개척선교사로서 장래 선교 사업의 터전을 닦기 시작한 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알렌이 사용한 이 방법을 오늘날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권 지역속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하다.

우리의 관심은 알렌이 이런 정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의 日記는 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예배보는 정도의 일밖에 못하였으나, 이만한 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²⁸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 복음의 내용들이 그를 돕던 한국인들에게 전달되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다. 이때 회심한 사람은 알렌의 첫 어학선생이며 나중에 워싱턴 주재 한국대리공사가 된 李夏榮과²⁹ 두 번째 어학선생인 노도사였다.³⁰ 알렌의 일기는 노도사가 목숨을 걸고 중국어 성경을 빌려가서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탐독하다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신비스러운 이적을 보고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믿음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우리 여기서 개혁파 특유의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사건을 볼 수 있다.

알렌의 한국 선교사역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은 일반은총을 매개로 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갑신정변 때 급진파 세력으로부터 민비의 조카뻘 되는 민영익이 동맹이 끊기고 며

²⁶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85.

²⁷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103.

²⁸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104.

²⁹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104.;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vol. I (1884-1934), 최재건 역 (서울: 연세대학교, 2009), 16.

³⁰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104.;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vol. I (1884-1934), 21. 로즈에 의하면, 노도사는 1886년 7월 11일 한국인 최초로 개신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²³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59.

²⁴ Calvin, *Commentary on Matthew, Mark, and Luke*, 1326.

²⁵ 칼빈, *Inst.*, III. 2. 6.

리와 몸에 일곱 군데나 칼에 맞아 생명이 위독하게 된 것을 알렌의 서양 의학의 치료를 통해 회복된 결과 공개적인 선교운동의 대로를 닦아 놓게 된 것이다.³¹

b. 언더우드

우리의 관심은 언더우드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국립병원 부설 醫學校에서 화학과 物理를 교수함으로써 그의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³² 그가 1886년 7월 11일에 최초의 한국인 성인 세례식을 은밀히 거행한 것을 보면³³ 아직 공개적으로 선교하기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 백낙준은 언더우드가 학교를 설립하여 선교 사역을 수행했음을 지적한다. 언더우드는 우선 孤兒院 이름으로 남자기숙 학교를 열었는데, 그는 '기독교대학'과 '신학교'를 구상했다고 한다.³⁴ 그러면 그는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 직접 복음을 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미국 公使 푸우트(福德)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교육을 통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교육 사업을 시작하려고 어학을 연구하려고 왔습니다 ... 우리는 서울에서 한국어 연구생으로서 또는 교육 사업가로서 미국의 국기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은 선교 사업이 아니라 교육 사업을 시작함이 어떻겠습니까?”³⁵

민경배는 이 같은 사실과 더불어 “기독교는 이렇게 처음 교육과 함께

31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108; Harry A.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I: 17.

32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135.

33 Rhodes,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I: 20.

34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137.

3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94.

들어왔다. 복음의 전수 이전에 교육으로서 서양의 철학과 그 체계를 전제로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이다”³⁶라고 그의 의중을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언더우드가 1881년에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화란 개혁파 신학교를 다니며 선교사로서 소명을 느꼈다는 것이다.³⁷ 이것은 언더우드가 교육을 통해 선교를 시도한 것은 그가 개혁신학을 배우면서 일반은총의 의의를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칼빈의 일반은총론이 간접적이기는 하나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번역해서 반포하는 사역에 주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은총의 의미를 잘 이해한 개혁파 선교사를 통한 간접적인 전도방법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이 韓半島 밖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한반도를 선교하는 모습은 마치 한 城을 포위하고 공략하는 전략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성경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외적 부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혁파 전통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 사이의 역학적인 관계를 통해 重生한다는 칼빈의 가르침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만든 것이다. 성경 말씀을 교회의 권위보다 아래에 두는 로마 가톨릭,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 인간의 언어를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부인하는 재세례파들과는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와 필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칼빈신학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기여했음을 볼 수 있다.

3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94.

37 “Underwood, Horace G.” *New World Encyclopedia*, at [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_G._Underwood](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G._Underwood)

이처럼 말씀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개혁교회 전통은 그 후 한국의 장로교 계통의 查經會를 통해 계속되었다.

우리의 질문은 언더우드만 일반은총을 통해 간접선교를 시도했는가 하는 것이다. 감리교 해외 여선교회³⁸ 소속이던 Mary F. Scranton도 이 화학당을 설립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음을 밝힌다.

그들 부녀자들을 여기서 우리 외국인의 생활양식과 의복제도와 생활환경으로 만들려고 아니한다... 우리는 그들이 한국적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훌륭한 한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³⁹

이런 내용은 길모어의 말 속에도 나온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살 생활환경에서 가정부인으로서의 모본이 되게 하며, 또한 친척과 친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있었다.⁴⁰

이것은 1636년에 성직자인 John Harvard에 의해 청교도 목사들의 교육기관으로 세워진 하버드 대학교 설립 전통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 역시 칼빈의 후예들의 영향에 속한다.

그러면 장로교 선교사들만 성경을 번역했을까? 감리교 선교사로서 배

³⁸ 함동주, "스크랜튼의 정신을 기억하자," in 『이화학보』 (2009 05 25) http://inews.ewha.ac.kr/news/article_View.html?idno=14803

³⁹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133ff. 백낙준은 다음 문헌을 인용한다. *The Gospel in All Lands for 1888*, 373.

⁴⁰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134; 백낙준 G. 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300.

재학당을⁴¹ 세운 아펜셀라도 성경 번역에 관여했다.⁴² 놀라운 것은 아펜셀라 역시 장로교인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의 심각한 종교적 결단의 경험이 그의 영혼을 휩쓸고 지나간 것 역시 장로교회에서였다는 것이다.⁴³ 말하자면 한국 선교에 칼빈의 영향이 간접적이거나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B. 개혁주의 신학 정립에 기여

유럽에서 이득히 먼 극동 지역 한 모퉁이에 있는 한국 땅에 16세기 사람인 칼빈이 사망한 후에 그의 사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330여년이 소요되었다. 그의 신학 사상은 그의 선교사 후예들을 통해 한국 땅에 전해졌다. 지금 한국 장로교회는 칼빈을 말하지 않고는 각 교단의 방향을 정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오늘 한국에는 칼빈을 주제로 하여 박사 논문을 쓰고 온 학자들이 수없이 많고, 칼빈 사상을 중심으로 모여 학회활동을 하는 학회가 적어도 세 개나 된다.⁴⁴ 올해가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성대하게 기념 행사하는 나라가 없다.⁴⁵ 이 사실 자체만으로 칼빈이 한국에 끼친 영향을 어느 정

⁴¹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134;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131.

⁴² 민경배, 131.

⁴³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131; 민경배는 아래 문헌을 참고했다. W. E. Griggs,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 (New York: Fleming H. Revell, 1918), 37-38.

⁴⁴ 칼빈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장로회신학회 등등.

⁴⁵ 2009년 장로회신학회, 칼빈신학회 그리고 한국개혁신학회가 연합하여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행사를 했는데, 1) 칼빈이 제시한 예배 형태에 따라 기념예배 드림 그리고 기념 음학회(6월 21일 15:00), 2) 칼빈 흉상 제막식(5월 12일 11:00 장신대), 3) 현대 불어판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장로교 계통 신학교들에 기증식 그리고 칼빈신학 발전에 공로가 큰 원로학자들에게 공로패 수여식(6월 22일), 4) 칼빈 명예도로 명명식(삼성로 73길을 '칼빈길', 그런데 사정상 연기됨) 6월 22일, 5) 칼빈기념우표제작, 6) 한국 장로교지도자 간담회(7월 17일 오후 5시), 사분오열된 한국장로교회를 하나 되기 위한 회

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장로교회(P.C.U.S.A.) 해외 선교부의 총재였던 A. Brown은 1911년까지의 선교사에 대해 평가를 “이 나라가 문호를 개방한 이후로 25년에 걸쳐 입국한 선교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청교도형의 인간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만도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어떤 신학을 정립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실 칼빈의 신학은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장로교회 신학을 정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금 한국에는 칼빈을 신학의 원조로 삼는 교단들이 무수히 많다. 우리의 관심은 칼빈의 어떤 면이 한국에 큰 교단을 만들 수 있게 했는가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백낙준이나 민경배는 한국에 이룩된 신학사상 어떻게 형성되었으면 동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듯하다. 이들의 관심은 역사적 사건들을 규명하는데 쏠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결국 장로교 신학의 원조인 평양신학교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세워졌으면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보면, 칼빈 신학의 영향이 어떠한가를 감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을 세우고 정립하는데 공헌한 사람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들이 칼빈의 신학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어떤 통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에 있다.

1. 칼빈신학의 통로로서 미국선교사들

칼빈신학이 한국 땅에 어떤 그대로 전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신학이란 역사속에서 그 시대적 정황과 더불어 발전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며 나아가 토착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칼빈이 중요하게 여겼던 주제가 이런 역사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했다면 우리는 한국에서의 그의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통로서 장로교 선교사들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낸 장로교 교단은 미국 북장로교(PCUSA), 남장로교(PCUS),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등이다.⁴⁶

이들은 칼빈 신학에 기초하여 세워진 미국 맥코믹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 출신들인데, 브라운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선교사들이었다고 한다.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이길함(Graham Lee), 소아론(W.L. Swallen), 콕안런(Charles Allen Clark), 베어드(William M. Baird), 무어(S.F. Moor), 로스(Cyril Ross), 버하슬(C.F. Berheisel), 아담스(J.E. Adams) 등은 맥코믹 신학교 출신이었다.⁴⁷ 이놀서(William D. Reynolds)와 구레인(J.C. Crane) 등은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 출신이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제 2대 교장을 지낸 라부엘과 함일돈은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이다. 이들이 한국장로교회 신학을 형성하는데 공헌한 사람들이다.⁴⁸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학교들이 어떤 신학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이다. 구프린스턴 신학교는 찰스 하지, A.A. 하지, B.B. 워필드 등 칼빈 신학의 후예들이 가르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도 그 출신들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가르쳤다는 점에서 개혁주의 전통에서 있었던 학교였던 같다.⁴⁹ 맥코믹 신학교는 중부의 프린스턴이라고 불리우던 북장로교의 교단 신학교였다는 점에서⁵⁰ 이 학교의 신학 사상과 칼빈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의, 7) 한국 장로교 신학자의 공포(9월 12일 토), 8) 한국장로교의 날 선포(7월 10일 금) 그리고 6월 22일 교수 72명이 동원된 논문 발표회가 개최됨. 이종을 목사가 대표로 수고하고 그가 시무하는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

⁴⁶ 박용규, 『韓國長老教思想史』(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63. 박용규는 여기서 Chun Sung Chun, 한철하, 김영재, 이종성 등의 글을 참조하여 한국의 장로교회가 초창기 네 개의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했음을 주장한다.

⁴⁷ 박용규, 『韓國長老教思想史』, 65, 67.

⁴⁸ 박용규, 『韓國長老教思想史』, 70. 박용규는 간하배, 김양선, 이종성의 말에 근거하여 이렇게 주장한다.

⁴⁹ 박용규, 『韓國長老教思想史』, 82f.

⁵⁰ 박용규, 『韓國長老教思想史』, 73.

요컨대 간접적이거나 하나 한국 장로교 신학 형성에 350여 년 전 제네바에 진원지를 둔 그 파동이 한반도까지 밀려와 그 흔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질문은 칼빈신학의 어떤 점이 이들에 의해 한국땅에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2. 독노회의 장로교 신조 사용

한국 장로교회사에서 특이한 것은 1907년에 한국 장로교 독노회가 성립됨과 더불어 그해 ‘인도 자유 장로회’에서 채용한 것과는 전문(前文)을 제외하고는 똑 같은 ‘십이 신조’를 채택한 점이다.⁵¹ 백낙준과 민경배는 이 신조의 특색을 강조한 칼빈주의적 경향에 있다고 본다.⁵² 주목할 만한 것은 십이신조의 전문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가르칠 것을 지시한다는 점이다.⁵³ 이것은 한국 장로교인 교육에 칼빈 신학의 영향이 분명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개혁신학의 특징이 선교를 통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교인들을 교육시킴에 있는데,⁵⁴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던 신앙고백서를 채용했다는 점이

⁵¹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225. 민경배는 여기서 1905년 공의회(公議會) 英文會錄) 37쪽을 참고한다. 참고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서울: 실로암, 1991), 8.

⁵²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407f.;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226.

⁵³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母)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웨스트민스터」신도개요서(信到揭要書)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할 것인 즉 우리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⁵⁴ 권호덕, “한국 장로교 일치운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신앙고백서’ 작성에 대한 한 연구”, 『조직신학 논문집』 1 집 : 하나님 형상, 교회 그리고 영원한 안식 (서울: 도서출판 Th & E, 2006), 250ff. 이 논문은 ‘장로회신학 신학회 논문집’ 제 3호 (2006)에 실린 것임.

다. 민경배는 왜 하필이면 인도 교회의 신조를 채용했는지에 그 명분과 까닭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⁵⁵ 백낙준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신앙고백을 채택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앙규범을 제정하여 주었으므로 신자들은 자기의 신앙체험의 표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다 제정하여준 신앙고백을 받게 되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신앙고백은 없다.”⁵⁶ 이 말은 다른 말로 한국 장로교가 독자적인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일에서는 개혁신학 전통을 따르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십이신조’는 칼빈의 신학사상이 대체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십이 신조’에서 1조는 성경관, 2-3조는 신론, 4-5조는 창조론, 6조는 인죄론, 7조는 기독교론, 8-9조는 구원론 또는 성령론, 10-11조는 성례론, 12조는 종말론을 다룬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요약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한국교회가 교리를 처음으로 확립할 때 칼빈의 사상이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다.

3. 종교개혁적 성경관 형성에 기여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삶과 신학 활동의 출발점이고 기초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칼빈이 기독교강요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것도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칼빈 신학의 서고 무너짐은 성경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전통은 한국 교회 초기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⁵⁵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226.

⁵⁶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408. 물론 나중에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신앙고백서들이 몇 가지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고백서이다. 따라서 신앙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첫째, 한국교회에 형성된 성경관은 장로교 '십이 신조'를 통해 그 기초를 놓았다. 십이신조 제 1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이다."라고 가르친다. 간하배는 한국교회의 경우 성경만이 강조된 교과서이며, 연구 교과서라고 가르쳤음을 지적한다.

모든 목사들에게 한결같이 신학적 영향을 끼친 이 신학교는 선교사 교수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총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역사적 칼빈주의의 배경을 지니고, 웨스터민스터 신앙표준을 수납하며, 장로 정치를 채용한 장로교인들은 구 프린스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치 않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중심이 있는 복음 이야기와 이에 대한 바울의 초자연적인 해석을 선교사들이 가르쳤고, 한국 교회는 서슴없이 받아들였다.⁵⁷

초창기 장로교 선교사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며, 따라서 모든 행위의 기본이 됨을 신실하게 받아들인다고 가르쳤다. 보수주의적이며 칼빈주의적이던 마포삼열은 표준성경주석 서문에서 "...본주석의 집필자들은 성경전부가 신의 영감된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오한 법칙이라고 믿는다..."⁵⁸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장로교 12신조의 성경관과 일치한다. 한국 보수교단들은 이런 성경관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다.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장로교회의 전통은 칼빈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계시와 영감과의

⁵⁷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실로암, 1991), 5. 간하배는 여기서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U.S.A. Presbyterian Church*, June 30-July 3, 1934, 121를 인용함.

⁵⁸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15. 여기서 그는 C. A. Clark가 쓴 『標準聖經註釋 - 마가복음』의 서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종교 교육부, 1957), 99. 9f.를 인용함.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의 현상이다. 특별히 19세기 워필드와 핫지 부자(父子) 같은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여기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던 인물이다⁵⁹ 말하자면 이들의 성경관은 계시와 영감 그리고 무오성이 엮어져 있었던 성경관이였다. 이것은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 출신인 이눌서 선교사와 같은 남장로교도 마찬가지였다.⁶⁰ "미국의 구학파 장로교 보수주의 배경에서 신학 훈련을 받은 이 눌서 선교사는 '완전 영감', '축자영감' 두 영감론이 성경과 기독교회의 교리라고 전혀 의심 없이 믿었다."⁶¹ 한국교회에 형성된 이런 성경관은 구프린스턴 신학을 거쳐 칼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칼빈의 성경관은 정통주의 신학 내지 구프린스턴 신학을 거치면서 무오성과 영감론까지 발전해 나가고 그것이 한국 땅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비평적 방법은 칼빈과 무관한가?"하는 질문이 생긴다. 사실 칼빈이 발전시킨 성경 해석방법은 문법적-역사적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상 역사적-비평적 방법에 속한다. 문제는 이 방법을 순수 이성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성령의 추진을 받아서 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성경 해석방법은 성령의 추진과 관계하는 문법적 역사적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국교회는 칼빈의 성경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칼빈보다는 정통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성경 無吳說과 성경 無謬說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칼빈처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전통은 성경중심적인 선교방법을 시도하도록 만들었고 이런 시도가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마포삼열은 그 동안 한국 복음화에 바른 성경관이

⁵⁹ 박용규, 『韓國 長老教 思想史』, 80.

⁶⁰ 박용규, 『韓國 長老教 思想史』, 82f.

⁶¹ 박용규, 『韓國 長老教 思想史』, 87.

크게 작용했음을 지적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유일하고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지난 50년간의 한국 복음화에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확신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⁶²

한국교회의 성장에 종교개혁적 성경관이 큰 역할을 했다는 말이다. 광안련의 다음과 같은 발언도 여기에 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중심의 교회에는 예배드리는 신도들이 가득차 있으며,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는다... 그런데 소위 자유주의적인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 이 같은 것은 내가 보기에 사실이며, 연구 가치가 있는 과학적 사실이다.⁶³

Herbert Blair는 이런 풍속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한국 선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 권위의 원리에 기초했다. 선교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도사역은 항상...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학교 훈련과 전교회에 있는 특별 성경사경회(special Bible Conference)에 중점을 두었다. 솔직히, 기독교는 권위의 종교 하나님에 기초한 종교다. 우리는 한국교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며, 충성스러운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⁶⁴

⁶²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실로암, 1991), 5. 간하배는 여기서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U.S.A. Presbyterian Church*, June 30-July 3, 1934, 40를 인용함.

⁶³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7. 간하배는 여기서 광안련이가 영역한 김양선 저서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를 영어로 번역한 책, 275ff.를 인용한다.

이것은 칼빈의 성경관이 한국교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말이다. 또한 한국 교회 역사가들도 성경공부 방법이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을 말한다. 사실 한국교회가 불과 1 세기 여 만에 20% 복음화 한 것은 성경중심적인 선교 방법이 주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용규가 초기 선교사들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면 성경중심적인 선교 방법이 한국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젊은이, 늙은이도 그들의 심령 깊이 성경의 말씀을 간직한다면 결코 잘못 나갈 수 없다”⁶⁵ 이런 이유로 “개신교 초기부터 장로회 선교회는 성경 훈련에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철저히 노력했다.”⁶⁶

감리교 선교회가 일반 세속 교육을 강조하고 그것을 복음전파의 도구로 삼았던⁶⁷ 것과는 달리, 장로회 선교회는 복음전파의 일차적 목표는 젊은이들을 성경중심(聖經中心)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 훈련시켰던 것이다.⁶⁸ 이 말은 한국교회 부흥에 칼빈의 성경관이 작용했다는 말이다.

요컨대 한국에 신학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에 칼빈의 영향이 암암리에 크게 작용했다는 말이다.

⁶⁴ 박용규, 『韓國 長老教 思想史』, 107f. 재인용 Blair, “Fifty Years of Development of Korean Church”, 142-43.

⁶⁵ 박용규, 『韓國 長老教 思想史』, 105f. 재인용 Charles Allen Clark, *Korean Church and Nevius Methods* (New York: Fleming H. Revell, 1928), 39,107; Idem,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Seoul: CLS, 1937), 121; Idem, *The Report of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Korea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the U.S.A.*, June 30-July 3, 1934, Seoul, 56.

⁶⁶ 박용규, 『韓國 長老教 思想史』, 106. 재인용 S. L. Roberts, “Fifty Years of Christian Training in Korea,” *KMF* 30(August 1934): 161, See also S. L. Roberts, “The Bible Training Class System,” *KMF* 30 (May 1938): 102-105; “The Bible and Missionary Tasks,” *KMF* 34 (May 1938): 108.

⁶⁷ 박용규, 『韓國 長老教 思想史』, 145 재인용 Charles A. Sauer, “The Relation of Educational Work to Evangelism” *KMF* 21 (April 1925): 90-92.

⁶⁸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197; 박용규, 『韓國 長老教 思想史』, 145.

C. 일반은총을 통한 영향

한국 교회에 대한 칼빈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또 한 분야는 일반은총 분야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 한국교회는 영혼 구원 문제에 매달렸다. 보수측 교단들이 100만 구령운동에 힘쓴 일이나 기타 대학생을 위한 선교단체들의 전도활동은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반면에 진보측 교단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다. 보수측 교단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는 것을 터부시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수도원적 이원론적 사고방식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수교단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칼빈의 일반은총이 아브라함 카이퍼와 헨리 미터 저서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등의 이 분야의 저서들이 1959년부터 차례로 번역되어 소개된 이후부터이다.⁶⁹ 사실 보수측 교단들이 이 세상 실존 문제에 대해 관심의 눈을 뜨게 된 것은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이다.

1. 칼빈의 일반은총론

그러면 칼빈은 일반은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아담의 타락전 상태와 타락후 상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하려고 한다.

a. 아담의 타락전 상태의 일반은총

먼저 칼빈은 타락전 곧 인간이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어떤 은사들로 구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까? 칼빈은 이 문제를 기독교강요 제 1권 14

⁶⁹ 헨리 미터의 *The Basic Ideas of Calvinism*은 「칼빈주의」라는 제목으로 1959년 6월에 개혁주의신행협회에서 초판으로 번역되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Lectures on Calvinism*은 「칼빈주의」라는 제목으로 1974년 5월에 세종문화사에서 초판으로 박영남에 의해 번역되어 나왔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의 일반은총론은 1979년에 총신대출판부에서 차영배에 의해 번역되었다.

장 20-22절 “창조에서 얻는 영적 교훈들”에서 다룬다. 여기서 칼빈은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이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영의 능력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이후에 온갖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지으셨고, 무수한 각종 사물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셨으며, 각 종류마다 자체의 본질을 부여하시고 기능을 부여하시고 장소와 위치를 지정하셨으며, 또한 모든 만물들이 부패할 소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각 종류들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사실 등을 배우게 된다.”⁷⁰

그 다음 칼빈은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열거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그에게 그렇게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장식하셨고, 또한 위대한 무수한 재능들을 부여하셔서 그의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모범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⁷¹

칼빈은 타락 후 인간 문제를 논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타락전의 인간의 위대성을 논한다. 여기서 그는 인간이 선천적인 우수성의 원상을 유지했다면 매우 위대했을 것이라고 말함을 통해 단지 간접적으로 인간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칼빈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에 대한 열의와 영생에 대한 명상을 넣어주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마음의 방향 내지 소원의 특징을 지적한다. 칼빈의 발언 곧 “시초의 우수성”⁷²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주시고 또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의와 선의 추구에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우리의 시초의 고귀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신다”⁷³라는 발언은 인간이 창조함을 받을 때 매우 탁월한 존재였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칼빈은 타락전 인간에 대해 열거하면서 ‘일반은총’이라는 말

⁷⁰ Calvin, *Inst.*, I. 14. 1.

⁷¹ Calvin, *Inst.*, I. 14. 20.

⁷² Calvin, *Inst.*, II. 1. 1.

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몸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선물을 제공하셨다는 점에서 그의 열거 내용을 일반은총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b. 아담의 타락후 상태의 일반은총

그 다음 칼빈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도 아직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관련하여 일반은총을 논한다. 칼빈은 인간이 타락하여 초자연적인 천품들이 소멸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타락 전 아담에게는 이런 천품이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성결 및 의에 대한 열성” 등.⁷⁴

칼빈은 타락한 인간이 이런 초자연적인 천품은 상실했지만 인간으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칼빈은 여기서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한다. 첫째, 인간은 타락 후에도 이성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칼빈은 인간이 창조함을 받을 때 짐승과 구별시키는 이성(理性)으로 구비되었음과 오성(悟性) 내지 이해력, 판단력, 의지력을 갖추었음을 가르친다.⁷⁵

둘째, 인간은 타락 후에도 사회적인 존재로 생존한다는 것이다. 즉 칼빈은 인간이 창조함을 받을 때 그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가르친다.⁷⁶

셋째 인간은 재능을 지닌 존재하는 것이다. 즉 칼빈은 學術과 技藝에 관한 지성을 논하면서 “어느 한 방면에 분명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⁷⁷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한 가지 재능을 지님을

보여준다. 즉 칼빈은 “우리는 인간성이 그 진정한 선을 빼앗긴 후에도 주께서는 많은 선물을 인간성에 남겨 두셨다는 것을 그들의 예를 보아서 깨달아야 한다”⁷⁸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은 창조함을 받을 때 학술하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칼빈은 학예에 관한 인간의 재능도 창조함을 받을 때 인간에게 부여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단지 타락과 더불어 부패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값없이 주시는 천품이 사람에게서 철수된 것과 같이 남아 있는 자연적인 천품들도 부패했다고 하는 어거스틴의 참으로 옳은 가르침 때문이다.”⁷⁹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타락 후에도 이런 천품들이 남아 있어서 인류를 위해 기여했다는 것이다. 죄가 있음에도 일반은총을 통해 이런 재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말이다. 바로 이 사실이 19세기 네오-칼빈주의자들로 하여금 일반은총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다. 우리의 질문은 칼빈의 이런 일반은총론이 한국 땅에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땅에 이 사상을 전달한 화란의 네오-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2. 아브라함 카이퍼와 헨리 미터의 영향

칼빈의 일반은총론을 19세기에 보다 더 상세하게 연구하고 발전시킨 인물이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반은총’에 대한 큰 저서를 남겼다. 세 권으로 된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은 직접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책 속에 내포된 사상이 그의 저서 『칼빈주의에 대한 강의』⁸⁰라는 책을 통해

⁷³ Calvin, *Inst.*, II. 1. 3.

⁷⁴ Calvin, *Inst.*, II. 2. 12.

⁷⁵ Calvin, *Inst.*, II. 2. 12.

⁷⁶ Calvin, *Inst.*, II. 2. 13.

⁷⁷ Calvin, *Inst.*, II. 2. 14.

⁷⁸ Calvin, *Inst.*, II. 2. 15.

⁷⁹ Calvin, *Inst.*, II. 2. 16.

⁸⁰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카이퍼는 1898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스톤-강좌”에서 이 특강을 했는데, 이 강의는 1931년에 Eerdmans 출판사에서 초판이 발간되었고, 한국어로는 1971년 11월에 세종문화사에서 초판이 번역되어 나왔다. 그의 칼빈주의에 대한 강의는 여섯 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1)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2) 칼빈주의와 종교, 3) 칼빈주의와 정치, 4) 칼빈주의와 과학, 5) 칼빈주의와 예술, 6) 칼빈주의와 미래.

헨리 미터의 책 『칼빈주의의 기본 사상』⁸¹은 영어 원본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저서보다 늦게 출간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먼저 번역되었다. 헨리 미터의 이 책은 그 원본의 첫 판이 1939년에 Eerdmans 출판사에서 초판이 발간되었는데 한국에서는 1959년 6월에 박윤선과 김진홍의 공역으로 개혁주의신학협회에서 그 초판이 나왔다. 즉 한국에서는 헨리 미터의 책이 먼저 소개된 것이다.

헨리 미터의 『칼빈주의의 기본사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1) 칼빈주의의 기본원리, 2) 칼빈주의 체계에서 성경의 위치, 3) 칼빈주의 체계에서 신앙의 위치, 4) 균형적 체계인 칼빈주의, 5) 칼빈주의 신학의 요점, 6) 일반은총에 대한 칼빈주의의 견해, 7) 칼빈주의와 문화, 8) 칼빈주의와 정치학과 성경, 9) 국가의 기원과 기능, 10) 가장 완벽한 국가 형태, 11) 정부의 형태, 12) 정부의 직무, 13) 정부의 권한, 14) 시민의 자유, 15) 사회 모든 부분의 주권, 16) 교회와 국가의 관계, 17) 국제주의, 18) 국제주의, 국제 연합, 칼빈주의, 19) 국제법, 20) 전쟁사, 21) 성경과 전쟁, 22) 기독교인 된 국민과 전쟁

우리는 헨리 미터의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5장까지는 칼빈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내용이고 6-7장에서는 일

⁸¹ Henc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75 5th ed.). 이 책은 한국에서는 『칼빈주의』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반은총과 문화를 다루고 8-22장 끝까지의 칼빈주의 정치론을 다룬다.

이런 저서들이 한국어로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주로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총신대학과 고신대학 학생들이 읽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질문은 카이퍼와 미터의 이런 일반은총 사상이 한국 교회에는 물론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뚜렷하게 영향이 나타난 부분만 언급한다.

a. 일반은총을 통한 수도원적 이원론 극복

우리는 위해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는 일에 있어서 칼빈의 성경 이해가 큰 역할 했음을 보았다. 그런데 근본주의적 세대주의 사상이 동시에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음도 부인할 수 없다. 세대주의 신학은 미래 언젠가 유다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곳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 문제에는 관심이 적고 항상 미래만을 바라 보게 하는 이원론을 구축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마치 수도원적 이원론처럼 세상을 등지게 했다. 이런 풍토 가운데 한국 보수교단은 이 세상에 관한 일들을 죄악시하거나 무시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이들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등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이런 풍토는 카이퍼와 미터의 두 저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신학교에서 임혀짐을 통해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내지 신앙생활이 교회 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 눈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주를 향해 뜨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죄악시 하던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 개혁교회 교인들이 리차드 니비가 분류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대립시키는 “대립유형”(Type of opposition)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문화의 변혁을 주장하는 “변혁 유형”(Type of transformation)에 로 전향한 것을 의미한다.⁸²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어떻게 하여 자연과 은총의 이원론적 오류에 빠져 있는 로마 가톨릭 신학이 한국 땅에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한국 학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새로운 지식을 利用厚生과 經世致用 등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적용하며 심지어 실학파가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다.⁸³ 이것은 사실 이원론을 극복하는 시도인 것이다. 반면에 이원론을 극복한 바탕에서 출발하는 개신교, 그 중에도 일반은총을 특징으로 하고 있 개혁파 한국 장로교가 이런 면에서는 이들보다 한 발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장로교회는 특별은총 차원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일반은총에 대해서는 간과했고 나아가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한 학파를 형성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문제에 눈을 뜬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였다는 것이 한국교회사의 가르침이다.

b. 정치 분야에 대한 영향

칼빈의 신학 사상이 한국 정치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를 통해 서구 칼빈주의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를 소개 받았다. 카이퍼는 미국의 사상적인 창시자는 칼빈으로 본다.⁸⁴ 즉 칼빈 사상이 미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동독이 무너지기 전에 서독일의 반미 학생들이 미국을 대항하여 데모하며 뿌린 뼈라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칼빈이 미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⁸² 리차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⁸³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7), 277ff; 朱紅星·李洪淳·朱七星, 『한국 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1999), 315ff.; 한국사상연구회 편, 『실학의 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7), 17ff.

⁸⁴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78. 10th printing). 87f.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하고 유학하면서 칼빈 사상이 만들어낸 미국 정치를 경험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는 한국에 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노동과 인간의 생명이 미국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다고 한다.⁸⁵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주의” 강의를 한지 10년 지난 뒤였다. 그가 카이퍼의 이 강의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⁸⁶ 그러나 그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기 이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⁸⁷ 칼빈 사상에 접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건국할 때 기도로 시작한 것으로 보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대통령 선서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 미국 민주주의에 익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링컨의 케티즈벽의 연설을 생각나게 한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하나님 아래서”라는 단서를 달았다.⁸⁸ 유감스럽게도 그가 세운 자유당은 아직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무비판적이고 편파적인 성향 때문에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미국 기독교민주주의 정치를 한국 땅에 접목시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한 것은 큰 공헌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칼빈주의 정치론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데, 여기서는 황우여 의원 한 사람만 언급한다. 그는 ‘한국기독교정치연소’를 만들고 “신앙과 정치”라는 전문잡지를 만들었다.⁸⁹

⁸⁵ 이원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인간 이승만』 (서울: 신태양사, 1988), 108.

⁸⁶ A.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이 책에 의하면 이 강의가 책으로 처음 발간했던 해는 1931년이다. 따라서 이승만이 공부하던 그 당시에는 이 책을 읽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⁸⁷ 이원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인간 이승만』, 120.

⁸⁸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⁸⁹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학술지 『신앙과 정치』 통권 제 1호를 2009년 1월에 발간했다.

그는 이 잡지 창간사에서 이 땅에 기독교에 입각한 정치의 기반을 닦아 올바른 교회와 국가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⁹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카이퍼와 도예베르트의 영향권에 있는 화란 자유대학교의 교수였던 H.E.S. Woldring의 저서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번역했다는 점이다. 그는 역자 서문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변혁적인 '기독교 문화'를 말하고 하나님 주권 하에 윤리적으로 바른 '기독교 국가'를 말하는가 하면 '기독교 정당'에 대해 논했다.⁹¹ 말하자면 황우여 의원 같은 한국 기독교 정치인들에게 칼빈의 일반은총 사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다.

서구 기독교 민주주의의 핵심은 하나님 주권과 분야 주권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 땅에 실현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유교적 우두머리주의 사고 방식을 극복해야 해결될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적어도 정치적 분야에서 칼빈의 영향을, 미국을 통해 받았다는 사실이다.

c. 학문 분야에 대한 영향

칼빈의 일반은총사상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연구되고, 나아가 카이퍼의 제자인 헤르만 도예베르트를 통해 기독교 철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도록 만들었다. 이 철학은 손봉호를 통해 한국에 소개되고 가르쳐졌다. 기독교 철학은 아직 보수 교단 내에 보편적으로 팽배하게 되지는 못했으나 이것을 배운 목사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창문을 마련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마치 근접

⁹⁰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학술지 『신앙과 정치』 통권 제 1호, 5.

⁹¹ H. E. S. Woldring, 『기독교와 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우여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2005), 22-25.

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기존의 일반 철학을 과감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이원론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것은 한국 보수 교단 신학교의 지평을 넓힌 것을 의미한다. 지금 기독교 철학에 대한 저서들이 많이 번역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 교회에 기독교 철학이 보편적이 되기에는 요원하다.

과학 분야에서는 한국창조과학회가 창조론에 근거한 학문활동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진화론에 근거하여 학문활동을 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독교 철학이 과학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할 뿐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한국의 기독교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학문을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확립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역사학 교수이던 이원설박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독교리더십연구원"이 바로 그것이다.⁹² 그의 저서 전체는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는 역사학 교수였지만 총신대학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개혁주의 신학에 밝은 분이였다.

말하자면 칼빈 신학은 聖과 俗 사이의 이원론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로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고 본다. 물론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 카이퍼와 헨리 미터의 영향은 크다고 하겠다.⁹³

⁹² 이원설, 『하나님 중심 세계관과 학문』 (서울: 보이스사, 1998); 이원설, 『思潮의 激浪 속에서』 (서울: 성광문화사, 1978); Won Sul Lee, *Beyond Ideology. A Christian Response to Sociopolitical Conflict in Asia* (Westchester, Illinois: Cornerstone Books, 1979) 등등 수많은 그의 저서들이 이 관점에서 저술되었음.

⁹³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Henr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카이퍼는 그의 책 제 1장의를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Calvinism a Life-system)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미터는 그의 책 제 1-4장까지 이 문제를 다룬다.

d. 문학 분야에 대한 영향

우리는 칼빈이 직접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칼빈이 소수의 문학적 작품을 저술하기도 했지만, 그것들의 영향을 지극히 미비하다. 따라서 그의 신학 사상이 그의 후예들을 통해 문학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그의 사상은 청교도들을 통해 수많은 문학작품을 만들게 하고 나아가 이 문학이 한국에 소개됨을 통해 한국 문학계에 새로운 장르를 소개하고 나아가 이 분야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연세대학교 영문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총신대학교 학부에서 오랫동안 영문학을 강의한 조진권 교수의 저서는 문학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한 것을 보여준다. 그의 저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청교도 저자들의 번역물이다. 『실낙원』, 『복낙원』(번역), 『투사 삼손』, 『존 단의 시집』, 『엘리엇의 황무지와 그 밖의 시들』(번역 및 해설), 『존 밀턴과 그 밖의 17세기 영국 시인들의 시들』, 『오 헨리와 그 밖의 단편소설 선집』, 『헤밍웨이와 그 밖의 영미 중단편소설 선집』. 둘째, 청교도 문학론에 관한 저서이다. 『존 밀턴의 문학과 그 주변 이야기: 서사시의 세계』, 『영문학에 나타난 성경의 향기』, 『정신사적으로 본 중세 영문학』, 『청교도 신앙과 문학의 탐구』, 『한국 문학과 기독교』, 『명작속의 크리스찬: 기독교전 탐방』, 『인생의 등마루에 서서, 그리고 그 밖의 시들』, 『세월의 향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신앙수필집), 『믿음과 꿈, 그리고 소명과 열정』(신앙수상 설교집), 『도전 받는 현대인과 신앙생활』(사상평전). 셋째, 성경해석과 성경에 관한 저서이다. 『모든 문예의 원천: 성경의 문학적 탐구』, 『성경의 문학적 접근방법 연구- 새로운 해석학적 시도』, 『구약의 세계: 재미있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신약의 세계: 예수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히브리 지혜문학의 이해』. 이 저서들은 성경을 소재로 저술된 청교도 저서들을 번역한 것 그리고 이런 성문

학(聖文學)에 대한 저자의 해설 등에 대한 것 그리고 성경해석과 연관된 것들에 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한 최종수 교수의 저서도 이런 측면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본다. 그는 우선 청교도 문학을 번역하거나 소개하는 저서를 남겼다. 이를테면, 『영문학사에 빛나는 신앙시인의 이해』(크리스찬다이제스트), 『기독교 회곡의 이해』(크리스찬다이제스트), 『기독교 문학 고전의 이해』(현대 지성사), 『엘리엇 문예비평론』(박문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 그는 문학을 통해 지성층 속으로 복음을 파고들게 하기 위한 글을 저술했다. 『문학과 종교의 대화』(성광), 『상상의 승리-기독교문학 입문』(성광), 『문학과 종교』(성광), 『현대문학 비평의 이해』, 『기독교단편소설의 이해』(크리스찬다이제스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두 사람 이외에 기독교인으로서 문학을 도구로 하여 기독교 진리를 불신자들에게 소개하려는 문인들은 많이 있다. 이런 시도는 복음을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대중 속으로 파고들게 만들어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지성층 속으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칼빈의 신학 사상은 일반은총 차원에 서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D. 개혁신앙을 방해한 요소들

칼빈의 신학사상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한국 땅에 처음부터 잠복하고 있던 여러 가지 방해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1) 우선 한국인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운명론적 사고방식은⁹⁴ 하

나눔께서 하신 일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송영케 하는 칼빈의 예정론을 꼭해하도록 만들어 성도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일을 방해했다. 그 결과 한국 교인들로 하여금 이원론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

2) 그리고 유교적 과거지향성은⁹⁵ 한국인들 내지 한국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과거에 붙들어 매어 달리게 함으로 보수주의 성향을 형성케 하여 개혁신학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개혁되는 일을 막았다. 유교적 우두머리 중심주의는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인맥 위주의 이념을 형성케 하여 성경의 진리를 계속 발전하지 못하도록 했다.⁹⁶ 그리고 이런 인맥주의는 나아가 한국교회로 하여금 세속적인 정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분야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다. 동시에 교조주의적인 유교적 사고방식은 칼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칼빈을 절대화 하는 우를 범했다.

나아가 유교적 우두머리 중심주의는 한국 교회 정치로 하여금 파당 정치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왜곡된 정치 형태는 교회를 불건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학문하는 활동을 질식시켰다.

3) 또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은 한국 교인들로 하여금 현실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많은 경우 미신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또 샤머니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마술신앙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이런 성향은 심지어 한국교회로 하여금 기복신학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칼빈신학으로 하여금 꽃

⁹⁴ 윤택림, 『의식 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현암사, 1974), 288. 윤택림은 샤머니즘을 논하면서 운명론이 끼친 악영향을 설명했다. 운명론에 근거한 도참설은 그 좋은 예가 된다. 다음과 같은 발언은 운명론이 한국인들의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닥쳐 올 장래를 수(數)라는 개념으로 신비 속에 끌어 넣어 소원을 풀게 한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난 사람의 일생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한 가닥의 희망을 걸어보려고 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관념을 넣어줌으로써 운명이라는 것을 감수하도록 심리적인 강제를 요구한다”

⁹⁵ 최준식, 『한국종교 이야기. 한국인의 마음을 빛은 巫·儒·佛·道』 (서울: 한울, 1995, 103).

⁹⁶ 양근석, 『한국사상과 윤리』 (서울: 형설출판사, 1995), 259.

피지 못하게 있다.

결론

1. 칼빈의 신학은 한편으로는 한국이 선교되기 전에 해외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선교를 시작하도록 추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은총을 사용하여 선교하는 일을 돕게 만들었다.

2. 칼빈신학은 한국 땅에 성경중심적인 신학을 정립하는 일을 도왔고 나아가 이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잠복해 도사리고 있던 여러 가지 복병들로 인해 제한을 많이 받았다.

3. 칼빈 신학은 한국 땅에 일반은총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끼쳐 한국 교인들의 지평을 넓게 여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보편화 되는 데는 요원하다. 칼빈을 추종한다고 하면서 구원중심적인 한국 장로교회는,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유학자들이 실학파를 형성하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반추하며 교정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인의 사고방식은 한국 땅에 칼빈 신학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했다. 한국개혁신학회는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복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꽃피우며 열매를 맺도록 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한국 교회와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칼빈 신학이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f Calvin's theological contribution
to Korean Church

Ho Duck Kwon

(Baese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s we mark John Calvin's Quincentenary, it is meaningful to examine his influence on Korea. Even though Calvin is far away from Korea in terms of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s his influence on Korea is significant in various aspects.

First of all, Calvin's theology has contributed to spreading the gospel in Korea through Scottish Missionaries and American Missionaries. Calvin's theology which regards the Bible as a key subject, has helped to formulate a biblical centered theology in Korea and contributed to the revival of the Korean churches.

And denn conservative professors from American Presbyterian Seminaries established such theology which was started by Calvin as they were teaching at Pyeongyang Theological Seminary.

A. Kuyper and Henry Meter who revitalized Calvin's understanding of common grace, introduced it to Korea in the 19th century. The introduction of the theological concept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the Korean churches, which has fallen into the dualistic monastery Error, to change the culture by penetrating deeply into the world.

Calvin's thought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political system as well. For instance, Dr. Syngman Rhee who studied politics and reformed theology at Princeton University established a Liberal Democratic Government in Korea. Also, a number of Christian

politicians in Korea desire to actualize a political system based on Calvinism.

Calvin's impact can be also perceived in the scientific area. A movement of Christians to pursue a God-centered scientific system has started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Dooyeweerd's Christian Philosophy. There are many English Literature professors who are carrying out a Christian literary movement by translating the puritanic literature into Korean.

Nevertheless,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many obstacles, such as Fatalism, Confucianistic Bossism and Confucianistic past-oriented way of thinking, still remain in concealment in the Korean society and has interrupted Calvin's theology to flourish in Korea.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ind a solution to such problems in order to develop Calvin's theology in Korea.

• **Key-Words** : Calvin, Abraham Kuyper, Henry Meeter, Korean Church, Politic, God-centered scientific system, Confucianistic past-oriented way of thinking.

[참고서적]

-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실로암, 1991.
- 김대인. 『숨겨진 한국교회사: 민족 교회의 발생』. 서울: 한들, 1995.
- 리차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박용규. 『韓國 長老敎 思想史』.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양근석. 『한국사상과 윤리』. 서울: 형설출판사, 1995.
- H. E. S. Woldring. 『기독교와 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우여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2005.
- 윤태림. 『의식 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현암사, 1974.
- 이원설. 『하나님 중심 세계관과 학문』. 서울: 보이스사, 1998.
- 이원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인간 이승만』. 서울: 신태양사, 1988.
- 朱紅星·李洪淳·朱七星. 『한국 철학 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1999.
- 최준식. 『한국종교 이야기. 한국인의 마음을 빛은 巫·儒·佛·道』. 서울: 한울, 1995.
- 전문학술지 『신앙과 정치』 통권 제 1호. 서울: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2009
- 한국사상연구회 편. 『실학의 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7.
-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78
10th ed.
- Calvin, John. *Commentary on Matthew, Mark, and Luke*. Vol. 3 i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1326.
- Meeter, Heney.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75 5th ed.
- Heussi, Karl. *Kompendium der Kirchengeschichte*.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81.
- “Underwood, Horace G.” 『New World Encyclopedia』 in
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_G_Underwood

함동주. “스크랜튼의 정신을 기억하자” in 이화학보 2009 05 25.

http://inews.ewha.ac.kr/news/article_View.html?idxno=14803

권호덕. “한국 장로교 일치운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신앙고백서’ 작성에 대한 연구.” In 조직신학 논문집 1집 『하나님 형상, 교회 그리고 영원한 안식』. 서울: 도서출판 Th & E, 2006.